

## 군산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회의록

|              |  |     |
|--------------|--|-----|
| 위 원 회<br>차 수 | 2025년 제2차  | 비 고 |
| 일 시          | 2025. 11. 3.(월) 10:30  |     |
| 장 소          | 군산시청 4층 면담실  |     |
| 출석위원         | 8명   |     |
| 회의진행<br>순 서  | 개회-위원장 인사-안건처리-폐회  |     |
| 상정안건         | 1. 제3차 군산시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용역<br>중간보고<br>2. 도시숲 등의 조성·관리계획 수립 용역 보고 |     |
| 위원 발언요지      |  |     |

### [의사일정 제1항 제3차 군산시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용역 중간보고]

#### ○ 황관선 위원

- 농수산 분야의 경우 병충해 발생이 농작물 재해 보험으로만 대응 가능한게 아닌것처럼 기후위기에 대한 대책이나 모니터링 등이 다방면으로 검토되어야 됨

(전북녹색환경지원센터)

- 세부이행과제 중 농수산 분야 관련 연구개발 사업과 인적자원 활용 관련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였음
- 그러나 향후 환경부 이행평가 등을 고려하여 최대한 포괄적이고 실제 이행 가능한 사업을 선정한 부분이 있음

---

## ○ 박서현 위원

- 사업들의 이행 가능 여부만 보고 보수적으로 대책을 수립하게 되면 미래 기후 위기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게 될 가능성이 있음
- 방문 간호, 무더위 쉼터 조성 사업 등 제시한 사업들이 구체적으로 기후변화 적응과 어떤 방식으로 연계가 되고 있는지 궁금함
- 교육의 경우 형식적으로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닌 교육을 받는 사람이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는 수용체 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

(전북녹색환경지원센터)

- 방문 간호와 무더위 쉼터 조성은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연관이 있다고 봄
- 교육의 경우 아직 세부적인 부분을 제시하지 못한 상태이며 구체적인 교육 대상, 교육 방법 등을 제시하도록 하겠음

## ○ 김종필 위원

- 기후변화와 관련해서는 친환경 산업의 전환 등 산업/에너지 분야의 탄소 배출량 절감이 중요하나 반영된 사업이 적은 것 같음

(전북녹색환경지원센터)

- 산업/에너지 분야는 탄소 저감을 위한 주요 내용으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계획에 반영되어있으며 기후위기 적응대책은 탄소 배출로 인해 변화된 기후에 적응하는 대책을 마련하는 별개의 법정 계획이므로 산업/에너지 분야의 반영 비율이 적음
-

---

## ○ 강영신 위원

- 수산 분야에서는 김 육상양식에 관한 R&D 사업이 반영되어 있는데 육상양식 뿐만아니라 수온 변화에 따른 맨손어업, 소규모 수산업 종사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이 반영될 필요가 있음
- 산업/에너지 분야에서 섬지역 LPG 공급사업의 경우 ESS도 병행해서 반영하는 등 전략적으로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

(전북녹색환경지원센터)

- 좋은 사업 제안이나, 이행평가 등 계획 수립 후의 이행가능성도 중요한 고려 대상이기 때문에 당장 대책에 반영하기 힘든 부분이 있음
- 그러나 부록에 제안 사항을 첨부하여 향후 계획에 참고할 수 있도록 제시하겠음

## ○ 백운초 위원

- 중간보고인만큼 예산, 대책 등 어느 정도 구체적인 내용이 완성되어야 하는데 미비한 부분이 많으니 최종 보고 시에는 보완하여 내실 있는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

## ○ 황관선 위원 외 위원 2명 의견서 작성

---

---

## [의사일정 제2항 도시숲 등의 조성·관리계획 수립 용역 보고]

### ○ 박서현 위원

- 도시숲 조성 시 빗물 저장, 지하수 연계 등 물관리와 연계하는 것이 중요하며 미세먼지, 탄소 저감을 위한 수종을 고려하는 등 수종 선택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함

(다숲엔지니어링)

- 본 계획 및 세부 계획 수립 시 의견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음

### ○ 백운초 위원

- 계획 부지가 부분적으로만 검토되어 있는 곳들이 있는데 공공 부지만 토지 매입을 할 것인지, 추가로 사유지를 매입할 계획이 있는지 궁금함
- 접근성이 좋지 못한 곳 포함하여 전체적으로 인공 시설물이 과다하게 들어가 추후 유지관리 문제가 우려됨
- 단절되어있는 숲들을 자연스럽게 연결해주며 기존의 자연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향으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

### ○ 김영민 위원장

- 숲의 산림적인 기능과 더불어 도시의 경관도 함께 고려되어야 탄소중립 실현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함
  - 풍수해를 막아줄 수 있는 수종, 병해충에 강한 수종 선택에 나아가 시민과 관광객이 즐길 수 있는 수종을 선택하여 실용적인 도시숲을 조성하길 바람
-

---

○ 강영신 위원

- 도시숲 조성구간 중 은파 등 한 곳을 부각하여 지방정원을 추진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판단되며 일방적인 행정계획이 아니라 거버넌스를 구성하여 계획에 시민이 충분히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
- 탄소 포집 능력은 나무보다는 이끼가 더 탁월한데 행정복지센터, 시청 등은 이를 적용한 이끼 수직월 형태의 수직 정원도 고려해볼 수 있겠음

○ 윤세자 위원 외 위원 4명 의견서 작성

---